

전신 대사 좌우... '갱년기 착각' 중년 여성 특히 주의



김진화
조선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갑상선 기능 항진증·저하증

환자 증가세... 호르몬 과다·부족 시 증상
추위·더위 민감도 ↑ ... 피로·체중 변화 등
약물치료 우선... 부작용 심하면 수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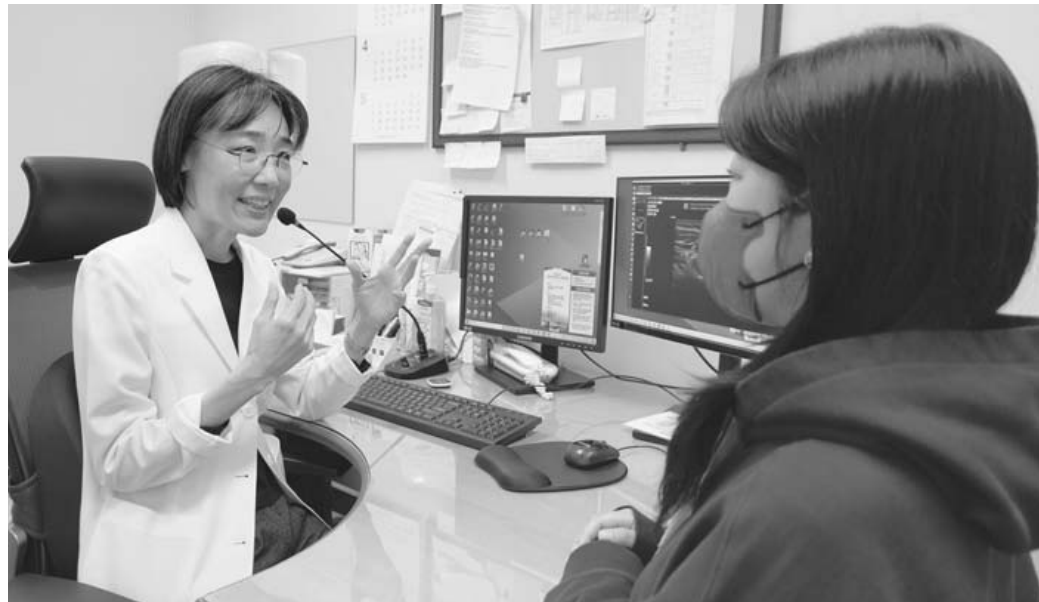
목 앞쪽, 후두 아래에 위치한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이 적절히 분비될 때 신체는 균형을 유지한다. 반대로 분비가 과하거나 부족해지면 전신 대사에 이상이 생기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김진화 조선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사내과 교수를 통해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의 증상과 예방법, 치료법 등을 알아본다.

◇먹어도 체중 줄고 심장 빨리친다면 '항진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갑상선 질환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여성에서 흔하고, 30~50대 중년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 대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상태다. 더위를 유독 많이 타고 땀이 늘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흔하다. 식욕은 증가하지만 체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장 운동이 활발해져 배변 횟수가 늘거나 실사가 동반되기도 한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 불면, 손 떨림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안구 돌출이나 목이 붓는 변화가 동반되기도 한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면역질환인 그레이브스병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자신의 갑상선을 공격하고 자극하면서 호르몬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된다.

치료는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꾸준한 투약이 필수적



김진화 조선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병원 제공〉

이며, 약물로 조절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나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붓고 추위 타며 무기력 지속된다면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 전반적인 대사가 느려진 상태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지속되고, 움직임이나 말이 둔해진다. 식

사람이 많지 않아도 체중이 증가하며, 얼굴과 손발이 붓는 경우가 흔하다. 추위를 심하게 타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여성에서는 생리 이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면역체계 이상으로 자신의 갑상선을 서서히 공격하면서 기능이 점차 저하된다. 과거 갑상선

수술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치료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증상은 안정적으로 조절된다. 다만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복용이 중요하다.

◇작은 변화 확인이 '가장 중요한 예방'
갑상선 질환은 뚜렷한 예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결국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피로감, 체중 변화, 추위 또는 열에 대한 민감도가 이전과 달라졌다면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넘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하다. 혈액 검사만으로도 비교적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도움이 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요오드 섭취다. 우리는 일상에서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를 통해 충분한 요오드를 얻고 있다. 추가적인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 이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갱년기로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변화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정리=기수희 기자

'개원 55주년' 조선대병원 "새병원·첨단의료 도약"

최근 병원 의성관 김동국홀서 기념식
공로패 등 시상... '미래 100년' 강조
최남규 병원장 "연구·공공의료 강화"

조선대병원은 개원 55주년을 맞아 최근 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21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기념식에는 김이수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장과 조선대 김춘성 총장 및 강희숙 행정부총장을 비롯해 임성훈 치과병원장, 보직자,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이수 이사장과 김춘성 총장의 축사와 최남규 조선대병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케이크 커팅식을 갖고 ▲총장 공로패(5명) ▲병원장 공로상(5명) ▲장기근속상(136명) ▲모범상(17명) 등 병원 발전을 위해 기여한 교직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지난 3월 취임한 최남규 제26대 조선대병원장은 "개원 55주년을 맞은 조선대병원이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환자 중심 진료와 공공의료의 책임을 이어나 데 대해 매우 뜻



조선대학교병원은 개원 55주년을 맞아 최근 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3월 취임한 최남규 제26대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병원 건립과 미래 100년 준비 등을 강조했다.

〈조선대학교병원 제공〉

깊게 생각한다"며 "병원 곳곳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의

료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새병원 건립을 통해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수희 기자

전남대병원 '급성 심근경색증 심포지엄' 성료

성별 따른 임상·치료 전략 등 논의
'맞춤형 정밀의료' 비전 등 제시

전남대병원이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 차이를 규명하고, 미래 정밀의료 를 위한 맞춤형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1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의생명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국내 의료진 및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성 심근경색증 성차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

전남대병원은 국내 대표 등록연구인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를 주도하며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는 정명호 광주보훈병원 교수와 김계훈 전남대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허혈성 심질환에서의 성차 인식(박상민 을지대 교수) ▲최신 임상 데이터를 통한 성별 기반 차이 분석(오석 전남대병원 교수) ▲인공지능(AI) 기반 성차 연구 및 예측(배성아 연세대 교수) 등 최첨단 연구 기법을 활용한 발표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안영근 전남대병원 교수와 윤현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향후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What should we study next?)'를 주제로 ▲성별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현대용 전남대병원 교수) ▲미세혈관 기능 이상 등 특정 질환 표현형에서의 성차 연구 확장성(안준호 전남대병원 교수) 등의 발표와 이어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조선대의대, 부산대의대, 고려대의대, 국립보건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차 기반 치료의 실질적인 임상 적용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행사를 주관한 윤현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은 향후 정밀의료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임상 연구와 진료 현장 모두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7/수희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